



눈내리는 오후...재촉하는 귀갓길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22일, 광주·전남지역에 모처럼 함박눈이 내렸다. 담양 5일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6중 추돌·전복...주말 빙판길 사고 다발

적설량 광주 3.7cm·곡성 5cm...광주·전남 31건 교통사고 눈 오늘까지 최대 5cm 더 내려...강추위 주중까지 지속

광주·전남에 모처럼 큰 눈이 내렸다. 주말과 휴일에 눈이 내려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했지만 눈발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에서도 크고 작은 빙판길 사고가 잇따랐다. 기상청은 23일 오후까지 광주·전남지역에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도 평년

수준(최저 -5~1도, 최고 4~7도)을 밑돌 것으로 보이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23일 오후까지 눈이 다소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빙판길 사고에 유의하고, 수도관 동파 등을 막기 위해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눈으로 광주·전남에서는 30여건의 빙판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광주시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에서는 11건, 전남에서는 20건의 빙판길 교통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22일 오전 9시9분께 광주시 서구 벽진동 서장 교차로에서 승용차 두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오전 9시22분께 구례군 용방면 순천~완주고속도로 화엄사 나들목 인근 교량 위에서 김모(44)씨가 몰던 25t 트레일러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트레일러 운전석이 교량 난간 바깥으로 이탈해 추락할 뻔했으나 출동한 119 대원에 의해 구조됐고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9시 54분께에는 순천시 황전면 순천~완주고속도로 황전2터널 부근에서 인천지역 초등학교생을 태우고 가던 관광 버스와 1t 트럭, 기름 운반차, 승용차 등이 6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 김모(70)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었고,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교 2명과 교사 2명도 가볍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후 1시39분께는 보성군 결백면 목포~광양고속도로의 초안산터널에서 승용차 5중 추돌 사고로 8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는 20일 낮 12시21분께 북구 문흥동 도로에서 정모(58)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와 이모(33)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마주 보며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에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오후 1시 18분께 광주시 북구 유동에서는 50대 남성이 빙판길에 넘어져 오른쪽 무릎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대한민국 바꿔보자” 더 뜨거워진 쫓불

주말 금남로 3천명·전남 4천명 집회...이재용 하옥 퍼포먼스 등

매서운 추위 속에서 열린 1월의 마지막 쫓불집회에서는 잠시 추웠던 쫓불이 다시 뜨겁게 타올랐다. 지난 21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제13차 광주시국 쫓불집회’에는 지난해 집회 인원보다 3배 증가한 3000여명의 시민이 참가했다고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22일

밝혔다. 이날 집회 주제는 ‘법정유착 분쇄’로, 참가자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 박근혜 즉각 퇴진, 부역자 처벌, 적폐 청산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정형택 광주본부장은 “잘못된 적폐를 쫓불의 힘으로 청산하고, 썩어

빠진 대한민국을 바꿔보자”고 주장했다. 이날 주재발언에서는 최근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새마을회’ 관련 발언이 잇따랐다. 발언에서 나온 이국인(50)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는 “모두가 적폐청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때 다른 곳도 아니고 광주에서 박정희의 유신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유독 새마

을회만 수십 년 동안 정부로부터 막대한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기각을 항의하는 ‘이재용 하옥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시민들은 이어 일제히 쫓불을 들고 금남로 본부대에서 광주법원 100m 앞까지 행진하며 ‘이재용 부회장 구속 및 삼성 재벌 해체’를 외쳤다. 전남지역 14개 시·군에서도 주민 4000여명이 13번째 쫓불을 들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서울 광화문 광장 32만명을 비롯해 총 35만3000여명이 쫓불집회에 참여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7 해질 03:21
해진 17:51 달짐 14:05

빙판길 조심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 오후에 그치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눈온뒤 갠	-5/1	보성	눈온뒤 갠	-6/1
목포	눈	-4/1	순천	눈온뒤 갠	-5/1
여수	흐린뒤 맑음	-4/1	영광	눈온뒤 갠	-6/-1
나주	눈온뒤 갠	-7/1	진도	눈	-1/2
완도	눈온뒤 갠	-2/2	전주	흐린뒤 맑음	-7/-1
구례	흐린뒤 맑음	-7/-1	군산	눈온뒤 갠	-6/-1
강진	눈온뒤 갠	-4/1	남원	흐린뒤 맑음	-8/-1
해남	눈온뒤 갠	-4/1	흑산도	눈온뒤 갠	-1/2
장성	눈온뒤 갠	-7/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5~2.5	북서~북	1.0~2.0
	면바다	북서~북	2.0~3.0	북서~북	2.0~3.0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면바다(동)	북서~북	2.0~3.0	북서~북	2.0~3.0
남해	면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2.0~3.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3:45 16:56 12:37 --:--	10:55 22:43 06:35 18:10
여수		

◇주간 날씨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5/3	-7/5	-5/8	-1/6	-3/6	-2/6	-1/6



◇생활지수

	매우높음
	높음
	매우높음
	관심

국정교과서 거부 움직임 확산

교육감협 국정화 금지법 통과 촉구...고교집필자협 집필 거부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이달 말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계획’ 철회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국정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뒤 한달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됐던 5·18 민주화운동 및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축소·왜곡 사례, 암묵적인 박정희 세습 분량 등에 대한 지적 사항이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이 최종본을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연구학교에서 우선 사용하게 한다는 계획이지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기로 해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광주교육청의 경우 아예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요청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으로,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요청 공문을 일선 학교에도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연구학교를 신청할 때 교직원 50%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자체 규정을 들어 교육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하더라도 연구학교 신청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22일 협의회장 이재정 경기교육감 명의로 “국회가 하루빨리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냈다. 역사 전공 교수와 교사들로 이뤄진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도 지난 21일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거부 입장을 밝혔다. /김지용기자 dok2000@

장애인 노동력·임금 착취시 중형

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에 ‘강제노동행위’를 추가하고, 학대 피해를 본 장애인이 머물 수 있는 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수당을 신청할 때는 장애심사를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1. 무안→규슈/오사카 직항 전세기

규슈 출발일 : 12.16~2.26/3박4일

산악회를 위한 규슈올레길!

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기타큐슈 나가사키/우레시노

오사카 출발일 : 1.30, 2.2/3박4일

오사카/나라/교토/고베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오사카 설연휴 : 1.27/3박4일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초특가 12/28, 1/9★

[육로]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출발일 :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골프]다낭 골프 54홀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소,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팁

※공통불포함사항 :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권 클럽 중식 불포함)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풍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풍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한별제품★

한별에비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 편도 50,000원부터~

무안→오사카 : 편도 98,000원부터~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곳 조이투어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공동행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차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제 가입업체 ※역사적 계약사(최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경비업(운전,가사/가이드봉사료,선박관리,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용에 따라 다름

※공동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피상용:1억원 국내상용: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방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